

## 건축물 붕괴 징후

건축물 붕괴의 징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할 때, ▲창이나 문이 뒤틀리고 열고 닫기가 어려울 때, ▲바닥의 기둥 부위가 솟을 때, ▲기둥 주변에 거미줄형 균열이나 바닥 면의 급격한 처짐 현상이 발생할 때, ▲가스, 연기, 매캐한 냄새가 나며 건물 내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올 때, ▲폭발하는 소리, 철근 끊어지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릴 때는 붕괴의 징후가 있으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만약 대규모 홍수 및 지진발생으로 인해 건축물 붕괴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정부에서 경고방송 및 재난방송을 실시하므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재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시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시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즉시 대피하고, 대피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안전지대로 비상 대피 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소방서, 경찰서 등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에 도달한 이후에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단 이동하지 않고 대기하며,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붕괴된 건축물 내부에 있을 때

만약 붕괴된 건축물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아야 한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하고,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함께 탈출 후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평소에 완강기, 밧줄(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곳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붕괴사고 발생 때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고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여 완강기, 밧줄 등을 이용하여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을 우선하여 탈출하도록 돕도록 한다.

대피 중 위급상황에 대비해 건축물에 대해 잘 아는 건강한 성인을 선두로 이동해야 하며, 낙하물에 대비해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한다.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때는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유리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코트, 담요, 신문, 상자(박스)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고, 붕괴 때문에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를 고려하여, 냉장고 등에서 음식과 물을 찾아 먹되 가능한 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음식물의 소비를 조절하도록 한다.

잔해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는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인다. 구조대의 호출이 들리면 침착하게 반응하고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고함을 지르지 말아야 한다.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때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소리로 부르거나 파이프 등을 두드리 구조대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요청한다. 방법으로는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한다. 휴대전화는 불통구역이라도 전원을 켜두되,

축전지(배터리) 절약을 위해 전원은 일정주기로 꺼둔다.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이나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리고,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난로(스토브) 등을 켜지 말아야 하며, 손전등을 사용해야 한다.